

21세기와 산업평화

인간은 모름지기 미래를 위하고, 미래를 향해 사는 유일한 존재이다.

현재의 허다한 난관을 극복하며 참고 견디는 것은 오직 미래를 위한 창조적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현실에 만족하여 자기자신을 잃고 현실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기존의 질서가 파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망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첨단 산업의 핵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은 우리 광학인들은 도래하는 밝은 미래를 맞기 위해서라도 지나친 현실집착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각 부문에서 소리높여 외치고 있는 민주화라는 것은 어떻게보면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 보다도 의무와 책임이 앞서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기가 먼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만 그 다음에 비로소 권리를 누릴 차례가 온다는 뜻이다. 이렇게 스스로 지켜야 할 규범이 있고 지켜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한꺼번에 제몫의 열매 다툼만을 하는 것은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했을 때 너무나 어리석은 다툼이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최근 침체 일변도를 견고있는 경제위기를 걱정하면서 자칫 남미의 세나라 처럼 되지않을 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중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전반만 하더라도 세계 5대



삼양광학공업(주)
상임강사 박주상

부국의 하나로서 어느 나라보다도 축복받은 땅으로 불리워졌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노동자들의 인기영합에만 급급하여 높은 임금과 많은 휴식 그리고 과도한 사회보장정책을 실시하여 결국은 高 인플레이의 악순환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늘날과 같은 빈국으로 전락해버린 사례를 남의 나라 일로만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3년간 아시아의 NICS 중 최고의 경제성장을 추구해왔던 우리가 89년도에는 최하위로 떨어지는 가운데 승천하던 용이 지렁이로 변했다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4마리 용중에서 제일 먼저 민주화라는 진통과 시련을 겪었기때문에 이제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하는, 90년대를 열면서, 사회안전에 무엇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는 노사문제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화합하여 산업평화를 정착시킴으로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다.

선진국이 수십년에 걸쳐 정착시켜 온 노사관행이 우리에게만 예외적으로 빨리 정착된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위기의 경제상황 아래서는 우리가 주저앉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서느냐의 국가적 운명이 걸린 사안인만큼 국민 모두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자의 더 달라는 요구도 사용자가 더 못주겠다는 주장도 노사관계에 있어 모두 수긍될 수 있는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내뿜만을 쟁기고 내가 해야 할 몫을 생각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풍조 등은 이제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사회에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근면과 성실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근로정신과 창의적 기업가정신을 하루속히 되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현대 산업사회에서 인간을 진정 인간답게하는 것은 나누어 아끼면서 더불어 사는 삶에 있기 때문에 함께 일하고 함께 대화하

“

지금까지 우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근면과 성실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근로정신과 창의적 기업가정신을 하루속히 되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해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지와 생산의욕을 고취하는 공존공영의 정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면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상호관계를 만들어 낼 때 진정 인간이 서로를 아름답게 존경하고 신뢰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복지라는 것은 노사가 상호 신뢰와 상부상조의 바탕에서 아픈 곳을 치료하고 괴로운 마음을 풀어주는 노력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해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지와 생산의욕을 고취하는 공존공영의 정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원화절상, 노사분규, 임금상승, 수출감소 등에 의한 경영여건악화는 우리 국내 경제 전체가 처한 어려움이었다. 이를 극복하려는 자세와 이에 따른 기업의 사활여부는 결국 개별기업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잘못된 결과로 인한 고통과 희생을 피하는 길은 주변 경영악화요인에 대응하는 노사의 합심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공동운명체 의식이 바탕이 되어 기업은 기술개발과 원가절감 그리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에 힘써 체질개선을 도모하고, 우리 근로자들은 생산성향상과 제품의 불량퇴치를 위해, 앞에서 제언한 건전한 근로정신을 회복하도록 하여 우리모두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발휘하면서 대망의 21세기를 차질없이 준비하자.